

남원시, 내년 예산 확보 총력전

세수 결손에 정부 긴급재정 기조 시장·간부들, 부처 방문 사업 설명 도자전시관 등 7개 사업 추진 사활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각종 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2025년도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최경식 시장은 기획재정부를 방문, 남원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며 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다수의 사업예산을 부처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용의 지상과제로 설정됨에 따라 신규 사업과 일부 사업이 미반영되거나 축소되는 등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민선식 부시장이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한 데 이어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일 부처를 방문하며 힘 있는 총력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남원시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 중인 사업은 ▲도자전시관 건립(170억) ▲국립 전북 스포츠 훈련원 건립(490억) ▲산내 부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2억8500만) ▲남원경찰수련원 신축(443억3000만) ▲첨단드론스포츠



지난 14일 남원시의 '20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최경식(왼쪽) 남원시장이 문상호(오른쪽) 문화예산과장에게 '도자전시관' 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활성화 지원센터(190억)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장비비 지원사업(50억)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15억) 등이다.

시는 이 사업들이 남원시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북도 및 정치권과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예산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 등

전략적 노력을 기울여 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이번달 24일까지

정읍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민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월 2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희망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재배 면적과 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는 추가로 최대 3

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최종 배정 인원은 법무부 배정심사협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희망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025년도 시급 1만 30원)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재까지 49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농시기에 맞춰 추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달리는 학습버스' 오지마을 찾아갑니다

고창군,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 30개 마을 방문

고창군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과 함께 교육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달리는 학습버스'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김제시, 부안군과 함께 '전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로컬배움터'를 주제로 교육부 주최 '2024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 특성화 부문 컨소시엄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환경이 부족한 읍면 마을 30개소를 순회하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달리는 학습버스' 수업 장면. <고창군 제공>

원예테라피, 수제정만들기, 목공 우드 체험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로컬공방형 배움터 지원사

업 등으로 모든 연령과 계층이 경계와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청소년들의 생태 탐방기 '고창갯벌에 살아요'

'청소년 갯벌 레인저스' 출판보고회 20여명 3월~10월 프로그램 참여 철새 탐조·생물종 관찰기 책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전북 고창갯벌을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책자로 발간됐다.

고창군은 지난 12일 해리면 '책마을해리 책숲'에서 '2024 청소년 갯벌 레인저스' 출판보고회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 갯벌 레인저스'는 고창지역아동센터에서 모집한 20여명의 청소년들이 고창갯벌의 생태를 느끼며 습지보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책 '고창갯벌 레인저스 탐사기-고창갯벌에 살아요'는 방풍 해송숲과 사구, 쉼터까지 하나로 이어진 고창갯벌에 계절별로 찾아오는 철새들을 직접 탐조하고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한 청소년들의 기록을 옮겨 지은 책이다.



고창지역아동센터 인재양성 프로그램 '2024 청소년 갯벌 레인저스'를 통해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느낀 후 이를 책으로 엮어낸 청소년들.

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치의 중심인 철새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탐조 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창갯벌 그린리더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청 민원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행안부 공모 선정...인증현판 수여

정읍시청 민원실이 '국민행복민원실'에 이름을 올렸다.

정읍시는 시 종합민원실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 선정돼 인증현판을 받게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을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이 평가 대상이다.

시는 서류 심사와 민원실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 총 25개 항목을 평가받은 결과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11월24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다.

시는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문 교체, 안내데스크 신설 등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인바디 측정기 등 다양한 데마 공간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했다. 또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휠체어, 영유아 의자, 전통보자기 급속 충전기, 점자안내 책자 등 각종 보조기구를 비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매주 화요일 운영되는 여권 야간민원실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 예약제로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